

폐인이었던 우리형, 멋지게 일어서다

■ 수상소감 한마디

우선 이렇게 이벤트에 당선이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특히 요새 바쁜 친척형과 연락을 거의 못했는데 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글이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인들에게 힘이 되고 더욱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우 / 대학생



벤처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지금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고종사촌 형이 생각난다. 고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외가보다는 친정에 자주 오셨기 때문에 나는 고종사촌형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고모네 가족은 어려운 형편상 가족이 흩어져 살았고 형이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함께 살게 되었다. 사춘기였던 형은 환경의 변화로 성격이 급격히 떨어졌고 자신이 원하던 신문방송학과는 아닌 컴퓨터학부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대학생이 되어 형을 만났을 때, 형은 예전과 달리 별다른 꿈이 없어 보였다. 아니, 도전을 잊은 듯했다.

하지만 이것이 형에게 있어 불행의 끝이 아니었다. “00이가 군대에 가서 허리를 다쳤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래.”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그 후 형은 의가사제대를 했고 다니던 대학에 복학한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고모는 우리집에 오셔서 하소연을 하셨다. 고모왈 “00가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계속 컴퓨터만 하고, 통신인지 뭔가를 해서 전화요금에 20만원이야(당시에는 전화모뎀)” “그녀석이 군대에 다녀와도 정신을 못 차리고 큰일이네. 내가 가서 한번 말해봐야겠네” 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이후로도 고모네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고, 고모가 우리집에 전화하

는 횟수가 늘어났다. 전화의 내용은 주로 형이 취직할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컴퓨터만 한다는 것이었다. 속으로 걱정은 되었지만 난 형을 믿었기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 후 형은 간간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약간의 돈을 번다고 했다.

벤처기업 열풍이 시작되고 성공한 벤처인의 기사가 신문을 장식하면서 형은 대학을 자퇴하고 본격적으로 컴퓨터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그리고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다. 학벌이 부족했지만 굴지의 통신업체에 채용되었던 것이다. 당시로서는 생소한 게임서버구축을 하는 일이었다. 취직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형이 나는 자랑스러웠다. 그 후로 형은 벤처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되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러던 중 고모네 큰아들이 카드 빚 5000만원을 남긴 채 갑자기 사라졌고, 고모명의로 된 카드였기에 고모는 출지에 카드 빚을 떠안게 되는 사건이 생겼다. “지자리도 복도 없지. 남편이 그랬으면 자식이라도 잘 되어야지...오히려 짐만 되고.” “그러게요, 그럼 이 제 고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격정스런 대화가 부모님 사이에 오갔다. 우리 집 또한 형편이 좋지 못해 도와주지 못하고 있었다.

추석이 되어 큰집인 우리 집에 친척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고 당연 화두는 고모가 떠안게 된 카드 빚이었다. 고모의 얼굴이 무척 수척해 보였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이겨내고 웃는 얼굴을 하곤 하셨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많이 늙으신 것 같았다. 카드 빚 뿐 아니라 행방을 모르는 큰아들 때문에 더욱 걱정이셨다.

그때 마침 벤처기업에 다니는 형(둘째)이 왔고 사정을 들은 형은 싫은 기색 없이 카드 빚을 갚기로 했다. 형에 대한 친척들의 걱정이 일순간에 녹았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모의 맘을 아프게 했던 형. 그러나

지금은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고 회사에서도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폐인취급을 받던 형은 멋지게 일어섰다.

마치 우리 형처럼 도전정신과 기술력을 상징하는 벤처기업은 힘든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멋지게 일어난 우리 형처럼 벤처기업들도 그럴 것이다. 주위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벤처기업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추신 - 벤처기업에 다니시는 여러분 건강 생각하면서 일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벤처인에게 박수를... ID : lordicat

제가 지켜보던 데 벤처의 길이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정열과 땀만 가지고 번뜩이는 두뇌와 기술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자하니 말입니다.

저는 아마 앞으로 벤처인을 영원한 동반자로 함께 살게 될 듯합니다. 그 사람의 성공 벤처를 향한 그 멈추지 않는 정열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힘이 들수록 더 강해지는 벤처정신처럼 말이죠!!

몸의 장에도, 터무니없이 적은 자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도전!

우리나라의 수많은 벤처인들도 모두 제 사랑하는 사람처럼 정열과 투지로 푹푹 뭉친 도전자이자 또 챔피언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 벤처 기업을 하시고 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 그 많은 땀과 뛰어난 기술과 두뇌만큼의 승리를 꼭 일구어 내세요. 저를 포함한 수많은 "우리"들은 그 패기와 정열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음으로.... ID : angelakim

'Venture'의 문이 열려있다고 준비 없이 성급히 도전을 하게 된다면 어쩌면 큰 실패와 좌절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도전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집념을 가지고 노력해야합니다. 혼자 힘으로 벽차다면 뜻이 맞고 목표가 같은 친구와 함께 도전하십시오. 그 모험의 길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질 겁니다. 많은 노력 끝에 도전을 하셨지만 실패를 하셨다구요? 그렇다고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많은 준비 끝에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실패의 요인을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또 다시 준비하세요. 마라톤 선수가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며 연습하듯, 우리들도 준비하고 준비하여 도전한다면 그 작은 문을 열고 그 문 뒤의 밝은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42.195Km에 다다랐을때 자신이 뛰어온 여정을 생각해보며 행복할 수 있는 벤처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벤처 & 어드벤처(1) *** ID : raydickson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저 역시 벤처기업에서 일하면서 금전적으로 돈을 모으진 못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과 자신감 회복입니다. 많이 넘어져 보니 안 넘어

지는 방법을 알게 되고 넘어지더라도 빨리 털고 일어나고 어떻게 상황 대처를 하는지 상황 판단력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젊은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 말고 도전하세요. 실패도 해봐야 경험도 쌓이고 그러면서 크는 겁니다.